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지니포럼이 그리는 '금융특화' 전북

2025년 9월 29일(월) 제 3181호

李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1주새 5%p 급락

지지율55%기록취임후최저치 민주당지지도 30%대 올해 최저 "대법원장 축출 시도 역풍" 분석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경제·소통'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급락했 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0%로 떨 어졌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 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 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5%p 떨어진 55% 로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2%p 반등했으나, 이번 주에 크게 추 락하면서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34%,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성향 진보 층(82%), 40·50대(70% 내외)에서, '잘 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7%)과 보 수층(63%)에서 두드러졌다. 중도층은 60%가 긍정적이었고, 무당층에서는 긍· 부정(40%·38%) 격차가 크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50명, 자 유응답) '외교'(20%), '경제/민생'(15%),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 '민생회복지원금',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344 명, 자유응답) '외교'(14%), '독재/ 독단'(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 금'(9%),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못 한다'(이상 7%), '진실하지 않음/거짓 말', '친중 정책',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 법부 흔들기'(이상 5%), '정치 보복'(4%)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 면면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조희대 대 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재 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 령 평가에도 반영된 듯하다"면서 민주 당의 독주로 이 대통령이 역풍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전 주보다 3%p 하락한 38%로 30%대로

추락했다. 이는 올 들어 최저치다.

서울은 35%, 부산울산경남에선 29% 로 급락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등의 순이었으 며,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30%로 늘어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8월 셋째 주 44%에 서 이번에 38%가 됐고, 같은 기간 국민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한 24%였고, 의힘은 평균 24%로 거의 변함없으며, 무당층 크기는 22%에서 30%로 늘었다. 양당 대표에 대해 물어본 결과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43%가

긍정, 44%가 부정 평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30%가 긍정, 51%가 부정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 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3.1%포인트, 응답률은 11.4%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책브랜드 자문단 위촉식 2025. 9. 26.(금) 10:30, 도청 종합상황실

전북도 정책브랜드 자문단 위촉식

전북도가 정책 홍보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브랜드 자문단을 지난 26 일 출범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

지니포럼 '세미나·토크콘' 개최 금융기관취업상담부스 등 운영

전북도가 26일 전주대학교에서 제 6회 지니포럼(GENIE Forum) 연계행 사로 '전북 금융산업발전 세미나'와 도민 대상 금융토크콘서트 '지니톡톡 (TalkTalk)'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 경에서 금융특화도시로의 전환 전략을 모색하고 도민에게 실용적인 금융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와 한국재무관리학 회는 공동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 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및 금융생태계 육성전략'을 주제로 전북 금융산업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 리에서는 학계·산업계·공공기관 전문 가들이 금융 공공기관 이전 방안, 리츠 (REITs) 활용 전략, 금융중심지 지정 추 진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

'지니TalkTalk'에서는 '염블리'로 유 명한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신한은행 오건영 팀장이 강연에 나섰다. 염 이사 는 '다가올 100세 시대, 장수를 위한 금 융 지식 쌓기'를 주제로 장기 자산배분 전략과 금융상품 활용법을 소개했다. 오 팀장은 '트럼프 2.0 시대, 고변동성 에서 살아남기'를 내용으로 글로벌 경 제 변동성 대응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200여 명의 도민과 청년이 참석한 질 의응답 시간에는 금리 전망부터 개인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행사장 외부에서는 금융기관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전북자치도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 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는 국정철 학과 지역공약에 반영된 자산운용 중 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이 맞물린 지금 을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의 최적 타이 밍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 랫폼 구축과 핀테크 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전국 최초 로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26 만 평 규모의 핀테크육성지구를 조성 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 및 관리 기반 을 구축했다. 해외 자산운용사 유치, 국 제금융컨퍼런스 운영, 도민 금융 교육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의 인프라도 다져왔다.

도는 이번 세미나와 토크콘서트를 통 해 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전북 특화 금 융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해 자산운 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변화를 이끌 계 획이다. /장정철 기자

'난기류' 만난 새만금공항 건설…전북 '균형발전 박탈감'

23개 사업 중 유독 지연 심화 법원 판결로 11월 착공 불투명 법적·행정리스크착공발목잡아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기본계획 취 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제기된다. 전국 23개 사업 중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지연 위기에 처하면서 전북 지역의 상 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 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 가운데 일부 R&D 및 인프라 사업

은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 공이 이루어졌으며 11개는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업도 행정절차를 거 쳐 내년부터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 이 이루어진 사업은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5개다.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도봉산-포천선 ▲영종-신 도 평화도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 램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 ▲경북 동해선 전철화 ▲울산 산재전문공공병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 등 11개다.

행정절차 중인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강원 제2경춘 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 도로 ▲경남 남부내륙철도 ▲대구산업 선 ▲울산외곽순환도로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유사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들의 진행 현황을 보면, 대 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 해선)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 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개 통을 목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는 노 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 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나, 2026

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하 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는 2023년 기본계획을 고시 완료하고, 구 간별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실행 중이다.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는 사업비 증액 등으로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착공을 위한 행정절 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경북 문경-김 천 단선철도는 경제성 부족으로 보완 작업을 거쳤지만, 2022년 11월 예타를 통과해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은 예외적이다.

8,077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최근 기 본계획 취소 판결 등 법적·행정적 리스 크로 제때 착공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

2019년 당시 정부는 "인구가 많지 않 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 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 보에 애로가 있다"며 "공공인프라 구축 지연과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이어지 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 반을 확충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 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겠다"며 국가균 형발전 프로젝트의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대형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 사에서는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 형발전 효과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추

<2면에서 계속>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전북, 추석 전 농업재해 복구비 125억 긴급 지원

과수·채소·가축 피해 보상 집중 피해큰농가상환연기·이자감면 경영자금 59억 추가 융자 지원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상기 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총 급 지원한다.

지난 25일 도에 따르면 봄철 과수 이 상저온, 5월 강풍·우박, 6~7월 집중호우 로 발생한 농작물·가축·스마트팜 시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복구비를 지급 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농작물 4,947ha(축 구장 6,900개 규모), 가축 6만2천 마리, 농기계·시설 217대 피해 농가다. 복구 125억 원 규모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긴 비 지원 규모는 ▲과수 이상저온 72억 원 ▲5월 강풍·우박 4억 원 ▲6월 호우 42억 원 ▲7월 호우 7억 원 등 총 125억

피해 농가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 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생계비가 지원

농약대는 과수류 1ha당 306만 원, 벼· 다. 논콩 등 일반작물은 82만 원이며, 대파 대는 채소류 1ha당 813만 원, 일반작물 은 372만 원이 책정됐다. 농가 단위 피 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도 가구 당 183만 원(4인 기준) 지급된다.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까지 시행하고, 498농가에는 59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강풍· 에 대해서는 356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우박, 집중호우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농 가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 농업 도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228농가 인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힘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 운영

내달 31일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도정·교육행정 개선 등 반영 행정사무감사 423회 정례회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31 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행 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 제안 내용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시례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이다.

재판·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허위· 비방성 내용, 익명 제안 등은 제외된다.

이지(열린의회 → 행정사무감사 도 다"고말했다. 민제안)를 비롯해 방문, 우편, 이메일 (sunja2847@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안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 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

문승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

이번에 접수된 제안은 해당 상임위원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의 삶과 밀접한 만큼 작은 목소리 하나 도 놓치지 않고 경청해 내실 있는 감사 를 만들어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 제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 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 간 진행될 예정이다.

> >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도시재생 성과·거점시설 홍보 강화



도내 거점시설 연계 투어 소개 QR코드정보제공,호응높아

전북개발공사는 2025대한민국 도시・ 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 참가, 전북자치 연계해 소개했다. 도 도시재생사업성과와 거점시설 연계 투어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마쳤다.

지구 도시재생사업지 내에서 지난 24일 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4일간 진 기술·정책 등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대 개 및 전주 올림픽 유치기원 등 다양한 외적인 홍보의 장이었다.

군 관계자들과 함께 연합부스로 홍보관 미지 제고를 도모했다.

을 운영했고, 도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 성된 거점시설 중 활발하게 운영중이며 투어프로그램에 소개할 만한 시·군별 대표 거점시설과 주변 가볼만한 곳을

특히 홍보리플렛 QR코드와 전북도시 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연동, 행사기 올해 7회째를 맞는 2025대한민국 도 간 동안과 행사 이후에도 도내 거점시 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삼척 정라 설 연계투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

행됐으며 도시재생사업과 다양한 산업・ 대상으로 도내 시・군별 대표 관광지 소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홍보활동으로 타 지자체 및 방문객들의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전북도 주요 관 재생지원센터 전주시 등 도내 14개 시· 광지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등 지역 이 /장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고발 "김민석 총리·민주당 명예훼손"



"민주당계엄 방조" 발언에 고발 "표결 불참 이유부터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민주당이 계엄을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나경 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며 "나 의원은 김민석 또 전북홍보관 방문객 약 15,000명을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 이어 "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 전에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과 계 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나 의원의 허위사

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 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 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기 몇 달 전부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이재강ㆍ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김동아 의원과 함께 서울경찰서를 찾아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공범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 이 의원은 고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 북에 "(나의원은)초선 모욕 발언에 이어 서 또다시 말도안되는 망언을 한 것"이 라며 "나 5선의원 논리라면 임진왜란을 미리 예견하고 10만 양병론을 주장한 율곡선생이 임진왜란 공범입니까?"라

전북자치도, 정책브랜드 자문단 출범

분야별 전문가 22명 위촉 도정 전략·네이밍·홍보고도화

전북도가 정책 홍보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이다. 들이 참여하는 정책브랜드 자문단 을 지난 26일 출범했다.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위 촉식을 열고 카피라이팅, 마케팅, 디 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위원 장과 부위원장, 각 분야 전문가로 구 성되며,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도정 홍보 현안을 자문한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는 자문단은 요 정책 네이밍 및 슬로건 발굴 △ 정책 홍보 전략 등 전반에 대해 전 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

북도는 이를 통해 정책이 단발성 홍 보에 그치지 않고 일관된 브랜드 가 치로 이어져 도민 생활 속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한다는 계획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전북의 미 래 비전과 정책이 도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 성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위촉식에서 "정책브 랜드 자문단은 도정의 브랜드 전략 을 고도화하고 전북의 이미지를 국 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22명의 전문가들과 함 △도정 핵심 정책 브랜드 전략 △주 께 정책의 통일성과 홍보 효과를 극 대화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브랜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실제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 (B/C) 지표가 0.27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이 낮더라 도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인 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보여준

새만금국제공항은 애초 국가균형발 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으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을 정부 가 이미 인정한 사업이다. 현 정부에서 도 국정과제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 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하기

경제성 낮아도 추진된 사례 존재 새만금공항, 국정과제 핵심 SOC 道 "지연 시 균형발전 취지 훼손"

전북도 관계자는 "동일한 국가균형 발전프로젝트로 선정된 새만금국제공 항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대 로 착공이 늦어진다면 전북만 국가균 형발전 흐름에서 뒤처지고,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출마희망당원 역량 강화

120여명 대상 아카데미 진행 후원회 운영·회계, 스피치 등 교육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 원장 이원택)이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2025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17일, 24일, 31일 매 금요일 3강씩 모두 12강이 열리며 120여명이 수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공직선 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회규정) 제27조 제4항에 '공직선거후보 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교 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와 당원의

열띤 참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첫날 전 북선거관리위원회 이슬기 주무관의 '후원회 운영 및 회계', 한국여성인권교 육센터 이미영 센터장의 '일상 속 폭력 에 대해 질문하기', 서주영 수석대변인 (전 전주방송 아나운서)의 '마음을 얻 는 스피치' 강의를 시작으로 헌법, 인 권, 정책, 재정, 소통, 선거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원 택 국회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전북의 발전은 전북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 인의 어깨에 달려있다"며 "혁신, 변화, 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는 반박글을 올렸다.

주당 의원들 명예를 훼손한 법적 책임 조했다.

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내란종식을 바 이 의원은 또 "나경원 5선 의원은 민 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고발 이유를 강 /서울=김영묵기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on)안전 수칙

◆자동차로 주행 시 (30) 이하로 서행 하세요

◇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불법주정차는 절대 안돼요

▶ 안전띠는 생명띠! 전좌석 안전띠 착용!

◇스클죤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해 주세요



3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추석기간 24시간 운영

4조 3교대 근무 체제 실시

시민들의 안전 위한 전주시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추석연휴기간 정상 가동한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오는 10 월 3일부터 9일까지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24시 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특히 집중 모니터링은 도심과 전통시 장, 공원, 주택가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관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전주시에는 총 1949개소, 4905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연 휴기간 24명 관제요원이 4조 3교대 근무 체제로 근무한다.

관제요원들은 경찰 및 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 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관제 센터 역할은 시민들 안전에서 매우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관기관 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민 생명과 안 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정소민 기자

세계 최정상급 인라인 선수 레이스 '전주'서 개최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 대회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 대회가 스무 번 째를 맞으며 전주종합경기장~월드컵경 기장 구간에서 개최된다.

전주시는 '2025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 대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옛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창립 20주년을 기 가 펼쳐진다. 념해 국내외 인라인 선수와 임원, 동호인 등 약 50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

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대회는 수준 높은 경기와 다채로운 볼 거리인 △트랙대회 △마라톤대회 △슬 라럼대회로 구성됐다.

특히 대회에는 세계 최정상급 인라인 선수와 동호인이 참가한다. 세계랭킹 10 위권 내 정상급 선수들이 대회에 대거 출 전해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힘찬 레이스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42km 보인다. 오픈부 △21km 마스터즈 △6km 비경쟁

모두 즐길 수 있다.

마라톤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20주년 기념품과 완주 메달, 기록증이 제공된다. 또 마라톤대회 전날에는 인라인 꿈나 무 육성을 위한 유치부·초등부·성인부 트랙 경기가 진행된다.

대회 20주년을 기념한 인라인 슬라럼 대회가 송천동 실내경기장에서 첫선을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17일까지 대회

코스 등으로 구분되 선수·동호인·일반인 공식 누리집(www.jjinline.org)을 통하면 된다.

> 전석진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은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은 도심 한복판 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대회이자, 올해 2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스케이터와 시민 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경기 운영으로 전 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인라인 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회운영' 조례안 가결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최서연 의원(진

북,인후1·2,금암동) 이 대표 발의한 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 하고 있다.

년들이 모의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 도를 직접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 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정 번 조례안은 청소년 의 및 책무 △운영계획 △신청 및 사용승 인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등을 명시

최 의원은 "청소년의회는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정 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 기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특별한 전통 체험·놀이' 운영

10월 3일~9일까지 추석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달빛포토존운영

사박물관·어진박물관은 관람객 위한 체 투호놀이'가 진행되며 달빛 포토존도 운 모험' 주제로 전주 태조로에 놀러 온 달 험프로그램을 준비해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관람객 위한 추석맞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낮

험마당, 가족영화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 관람객을 맞는다.

동시에 전주역사박물관 앞뜰에서 '연 다가오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주역 휴 상설 체험'으로 제기차기 · 딱지치기 · 영된다.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을 찾는 별 행사'로 박물관 1층 교육체험실에서 '명절 한복과 잘 어울리는 노리개와 청사 초롱 만들기 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

달마실'주제로 전통놀이마당과 전통체 보는 '낮달소원wall'이 운영되며, 소원을 방'에서는 달토끼 키링만들기 체험이 하 빌고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루 300개씩 한정적으로 운영되며, '태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아울러 어진박물관은 '달토끼 추석 대

토끼와 함께 사진관, 오락실, 공방, 문방 특히 10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추석 특 구 등을 방문하는 콘셉트 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여기에 '태조로사진관'에선 인생세컷 포토부스가 운영되며 투호던지기 전통 박물관 1층 로비에는 달빛 아래 적어 놀이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다. '태조로공

로문방구'에서는 두루마리에 소원 쓰고 종이 뽑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태조로공방'과 '태조로문방구'는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만 운영되며, 추석 당일 6일에는 '태조로공방'에서 소원모 빌만들기 체험도 만끽 할 수 있다.

하재식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은 "박물관을 찾아준 모든 관람객들이 즐거 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대회'성화 점화

세계 33개국 선수단 출전 1만 5000여명참가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 드론축구 대회가 종주 도시 '전주'에서 막을 올리 며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 슬로건 아래 시작됐다.

전주시는 지난 25일 '2025 전주드론축 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 개막식과 함께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 다.

개막식에는 전북자치도 어린이 국악현 악단 합창이 개막식 울려퍼졌으며 전주 대학교 태권도시범단 '싸울아비' 무대가 관중 환호를 이끌어내며 시작됐다.

이어 150대 군집 드론에어쇼가 전주 밤하늘을 수놓았다.

군집 드론에어쇼는 전주를 찾은 전 세 계 드론축구 및 국내외 방문객을 환영하 는 뜻에서 드론축구월드컵 트로피와 드 론축구볼을 그려냈다. 또 전북도 무형유 산인 왕기석 명창의 애국가 제창, 취타대 전통 군악 퍼레이드, 기수대 행렬이 이어 져 개막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세계 최초 드론축구월드컵 드론축구 대회가 종주 도시 '전주'에서 막을 올리며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 슬로건 아래 시작됐다

World Cup Jeonju 2025)'에는 아시아권 (15개국) 판아메리카(7개국), 유럽(7개 국), 아프리카(3개국), 오세아니아(1개국) 등 세계 33개국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 세계 33개국 선수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즈등 1만 5000여명과 드론축구 민관 조 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김정태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가했다.

전주시장 개회사, 노상흡 국제드론축구 연맹(FIDA) 회장 환영사, 국토교통부 제 단 및 방문객, 시민, 자원봉사자, 서포터 2차관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지

며 테너 3인 월드컵 주제가 공연과 대회 기가 게양됐다.

특히 대회 선수단과 심판의 힘찬 선서 에 이어 대회 하이라이트인 내빈들의 드 론볼 시축과 성화 점화가 이뤄지며 이번 대회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드론축구월드컵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4일간 세계 최초 드론축구 전 용경기장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와 월드컵경기장 광장에 마련된 드론축구 특설경기장에서 우승컵을 향해 열띤 경 쟁을 펼친다.

드론축구월드컵은 세계 23개국 참가하 는 드론축구(Class40, Class20)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Cracing) 대회 가 개인전 슈퍼파일럿 선발대회 등 드론 축구볼을 활용한 신규 시범 종목도 함께 선보인다.

더불어 경기장 안팎에서는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 2025 Buy전주 GOGO페 이 후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스티벌을 비롯해 드론 체험프로그램, 전 주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2025년 한가위 인사'

"건강·행복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6일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 장은 2025년도 한가위가 다가옴에 따라 전주시민들에게 인사말을 보 냈다.

남 의장은 먼저 "한가위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 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 인사말을 건넸다.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우 리 모두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 차게 전진해야 한다.

전주시의회도 시대의 변화와 시 민의 요구에 발맞춰 정의롭고 책 임 있는 의정을 펼쳐 가겠다.

우리는 기후 위기, 경기 침체, 인 구 감소 등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

전주시의회는 이에 발맞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 복 위한 민생 안정, 미래 성 장 기반 마련 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 결되는 현안을 현장 속에서 시민 의 목소리를 들으며 꼼꼼히 챙기 겠습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유난히 길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사건・사고를 유 념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명 절을 보낼 수 있을 바란다.

남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새로운 시 대에 걸맞은 의정으로 보답하겠습 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 가정 마다 웃음과 풍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고 인사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추석 연휴 교통관리 만전

단계별 '특별 교통관리' 실시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과 전북자 치경찰위원회는 오는 추석을 대비해 도내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단계별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 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540만대로 전 년에 비해 교통량이 2.7% 감소될 것 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평년보다 연휴기간이 길어 도내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 중심 안전활 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1단계인 연휴 이전(9.27~10.1) 까지는 명절 준비 등으로 붐비는 대

형매장(20개소)·전통시장(26개소) 주 변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 대 경력 등을 배치해 교통 무질서 및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귀성·귀경이 시작되는 2단계 (10.2~10.12)에는 교통상황실을 운영 해 연휴 기간 교통상황 등을 집중 관 리하고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IC와 연 계되는 교차로, 공원묘지 등 혼잡 구 간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암행순찰차 및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등을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등 얌체 운전 및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 유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도 병행한다. /정혜민 기자

농촌진흥청,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 공유회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흥기관은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되 26일 전국 농촌진흥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업기 술원장 및 국·과장 그리고 156개 특· 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농 업·농촌 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 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 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 불어 행복한 사회이다.

이승돈 청장은 "중앙-지방 농촌진

도록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실행 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식량안 보, 스마트 데이터 농업, 탄소중립, 청 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 당면 과 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국정과제별 실천 과 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제 별 주관 부서와 협조부서 협업 체계 를 구축하고,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 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실천 과제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요양병원 현장 점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골 든카운티 요양병원을 방문해 화재안 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 을 찾아 요양병원 내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환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요양병원은 지상 7층 규모로 약 180여 명의 입원환자와 간호사·요 양보호사 등 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가 많아 자력 대피가 쉽지 않은 시설 로, 명절 기간 보호자·방문객 증가와 맞물려 화재 취약성이 더욱 높다.

박덕규 서장은 △소방시설 유지·관 리 상태 △피난 및 방화시설 확보 여 부 △대피 동선 장애물 제거 여부 등 다. 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에게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절차와 환자 대 피 지원 체계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병원 직원들과 직접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공유하며 "예방이 최 우선이며, 불이 나더라도 초기소화로 확산을 막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소 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담보되어야 한 다"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요양병원은 자 력 대피가 어려운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의료시설 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정혜민 기자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전북중기청, 장기근속 근로자에 주택 특별공급

'송천 아르티엠 더숲' 6세대 확정…주거 안정 통한 장기재직 유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 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의 안 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 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

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 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송천 아르티엠 더숲'는 ㈜우경주택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특별자치도 전 주시 송천동1가 12-7번지 일원 일대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확정 6세대 (예비 30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 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3년 이상)인 근로 자가 해당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 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 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 주택형의 지역 별 및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 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

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 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ㆍ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 리시스템(https://www.smes.go.kr/ 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정혜민 기자

전북은행, 소외계층에 2천만원 상당 백미 나눔

지역경제 활력·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기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은 지난 26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 서 2025 '一石二鳥 추석 나눔' 사업 전달 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 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 금회 이은영 사무처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도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 한 2000만원 상당의 백미(10kg)를 전북 은행지역사랑봉사단 61개 봉사팀이 직 접 사회적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봉사활 동을 펼치며 나눔을 실천했다.

박성훈 부행장은 "이번 나눔 활동을 통 해 고물가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쌀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음 을 나누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

전북은행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해 추석 나눔 봉

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정혜민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건강한 지구 만들기 동참

진안초서 NH그린액션 실시

성훈)는 26일 진안초등학교에서 실 천하는 기후행동으로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는 'NH그린액션'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성섭 농협 진안 군지부장, 김정민 진안초등학교장,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 다. 부장 등이 참석했다.

'NH그린액션' 제23호 현판식을 갖고, 학교에 친환경 안전우산 50 개와 우산거치대, 업사이클링 양말 200켤레 등을 전달했다.

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 다. 능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협은행전북본부와 세이브더칠드 런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북형 환 경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교실 내 비치된 폐플라 스틱 수거함에 분리배출을 실천하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 고, 이것을 업사이클링해 안전우산 과 양말 등으로 제작 후 학교에 다 시 전달된다.

> 진안초 학생들은 업사이클링 양말 200켤레에 정성으로 쓴 손편지를 담아 대성 경모정에 전달해, 나눔의 행복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

변성섭 지부장은 "이번 NH그린액 션을 통해 자원순환의 의미를 깨닫 고, 생활 속에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의 활동이 친환경 가치와 지속가능한 생활을 배우는 'NH그린액션'은 기후위기와 탄소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

>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NH교실 숲만들기', 'NH초록세상만들기' 등 ESG교육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정혜민 기자

국토부-LX, 지하안전 및 지하정보 활용전략 모색

지하정보 포럼 개최 산·학 연관 모여 발전 방향 논의

지하정보 체계적 활용과 지하 안전사 고 예방 등 지하정보의 미래 발전 방향 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모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 했다. 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주관한 2025 지하성보 포넘 이 지난 25일 일산 에서 개최됐다.

융합으로 여는 지하정보의 활용성 제고 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와 차세대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다 양한 의견과 비전을 공유했다.

Radar)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반 침하 발생 예측 및 조기 대응', 올포랜드 최근호 전무는 'LLM+RAG 아키텍처 기 반 GeoAI 활용방안 지하를 읽는 인공지 능', 메타지아이에스 고광철 부사장은 '데이터 기반 차세대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등 지하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

좌담에서는 전주대학교 김일 교수를 좌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지영 교수,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이원영 팀장, 국토 안전관리원 김홍균 부장, ICTWAY 정진 이번 포럼에는 산·학·연·관을 대 영 본부장이 참여해 지하정보 현재 활 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첨단기술의 용 성과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심

국토교통부 안수진 공간정보진흥과장 은 "국토교통부는 지하정보의 정확성과 이날 발표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것"이라며 "앞으로 최첨단 기술을 지하 안전관리와 접목해 지하정보 활용 확대 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지하개 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LX공사는 지하정보 전담기관으로서 영욱 교수는 'SAR(Synthetic Aperture 제시된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구축과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첨단 기술과 제도가 결합 된 차세대 지하정보 관리 전략을 도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혁신 적인 지하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 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농협, '양파' 선제적 수급 안정 총력

수급조절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 을 펼쳤다. 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5~26일 양 일간 농협 변산수련원에서 도내 양파 성과 △양파 육묘관리, 정식포 준비 및 주산지 시·군과 농협, 생산자 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북 양파 품목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으로 진행 됐다. 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락과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6 년산 양파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6.5% 감소한 1만 7,017ha로 전망 되고 있다. 금번 워크숍을 통해 적정 양파 재배 면적 확보를 위한 주산지별 대책 마련

을 중점적으로 정보교류하고 선제적 수 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이번 워크숍은 △의무자조금 운영 및 생리장해 △양파 재배면적 및 경작신고 요령 △농우바이오 양파 품종 소개 순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사전 수 급조절 홍보와 교육, 수급 관련 자료 따르면 2025년산 수확기 양파 가격 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정확한 생산 정보에 의한 선 제적 수급대책을 마련해 양파 가격의 안정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TP '장수 트레일레이스' 참여기업 판로개척

2만여 잠재고객 대상 프로모션 등 적극 지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 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북특별자 치도 장수군에서 열린 '2025 장수 트 레일레이스' 현장에서 '2025년 장수군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들 과 함께 판촉·홍보 행사를 운영했다 고 밝혔다.

장수군과 ㈜락앤런이 공동 주최하 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틱종합기술 원이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장수종합 경기장을 중심으로 4일간 진행됐다.

기업들에게는 현장 참가자, 관람객, 대회 SNS 팔로워 등 2만여 명의 잠재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된다.

를 보이고 있는 장수 트레일레이스는 국내 최장 거리의 대표 트레일러닝 대 회이다.

으로 한 코스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을 추구하는 MZ세대에게 각광받는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판촉행사에서는 장수 지역에

서 생산되는 레드푸드(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를 활용한 농식품, 전통식 2022년 첫 개최 이후로 매년 성장세 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이 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소개됐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기업들 장수군이 지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이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직접 고객과 장수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 만나는 판촉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신규 판로 개

척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대표 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연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역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주관해 운영하는 지역산업 육성 프로

/정혜민 기자



전북 기업사랑 도민회 건강 관련 리더스 포럼 성료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 장 윤방섭)은 회원기업 사시진작을 위 한 간강관련 리더스 4차 포럼을 지난 23일 실시했다.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 는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양영식 회장 이 강사로 나와 평소 건강관리 노하우 과 치료법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사 업도 성공할 수 있다며 기업경기도 좋 지 않은데 건강마저 잃으면 사업도 어 려워 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오늘 강의 와 실습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사랑도민회는 매월 포럼을 개 최해 회원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의에 적절한 강의주제들을 선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서울정원박람회서 '농심천심운동' 홍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도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025 서 울국제정원박람회 서로장터'에 참가해 전북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와 농심천심 였다. (農心天心)운동을 홍보했다.

맞춰 도·농 교류를 통한 농업·농촌 가 다. 치 공감의 장을 마련하며 추석 명절 물 가 안정을 목표로 했다.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홍보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보라매공원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민들에 서 서울시 주최로 진행됐다.

전북농협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 머스켓, 고구마양갱, 소금세트 등 선 물세트를 중심으로 시중가 대비 최대 말했다. 16%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아울러 행사현장에서는 관람객들에 게 샤인머스켓, 고구마, 소금의 건강효 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농심천심 퀴 즈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참여도를 높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알리 이번 행사는 '농심천심운동'의 취지에 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에도 힘썼

이정환 본부장은 "농심천심은 신토불 이(우리농산물 애용)와 농도불이(도농 교류) 운동을 계승·발전했다"며 "이번 게 전북 농산물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전북 농업인의 땀 인·공덕농협·해리농협이 참여해 샤인 과 정성이 담긴 농산물이 서울 시민 밥 상에 건강과 신뢰를 더하길 바란다"고

/정혜민 기자

5

학폭 심의 10건 중 4건 지연…전북 10건 중 3건

심의 건수 지연율 연속 1 "심사위원·전담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해야"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처분을 결정하는 학 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며 피해 학생 보호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 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 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교육 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시·도교육청별 학폭위 심의 개최 소요 년 1만1천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간별 건수를 공개하며 "전국 사건 10 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 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심의 접수 후 21 일(3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 황에 따라 최대 7일(1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폭 위 심의 지연(4주 이후)은 △2022년 8천 204건 △2023학년도 9천530건 △2024

보였다.

42.7%인 1만1천912건이 4주 이내에 열 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은 1005건 중 36.12%인 363건이 의 건수가 많을수록 지연율이 높아졌다. 지연돼 전국 평균인 42.7%보다 조금 낮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 (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 (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북의 학폭 심의 건수는 △2022년 2024년에는 전체 2만7천835건 중 676건 △2023년 794건 △2024년 1005 건, 심의지연율은 △2022년 15.38% △ 2023년 26,45% △2024년 36,12%로 심

문 의원은 "학폭 심의가 지연되면 학 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 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투명성 강화

여행업체 청렴 간담회 개최 학교업체 간 신뢰 기반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대표들과 '2025 년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 청렴 간담회' 화, 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 등 현장에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 학교와 업체 간 신뢰·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도교육청 청렴 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 공유 △여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 업체들은 계약 절차 간소 서 체감하는 문제와 개선 의견을 제시 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형택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 사장은 "교육청이 직접 나서 소통하는 만큼, 우리도 청렴하고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과 제 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과 청렴 실천 계획 수 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 회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청렴 인식이 한층 개선되고, 학교와 업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 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 책을 추진해 현장체험학습 분야의 청렴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전북체육회,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맞손'

부패 발생 위험 발굴·개선 청렴 체육 문화 조성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 치도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 동부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교육청은 26일 본청 5층 회의실 에서 전북체육회와 '학교운동부 운영 의 부패 발생 위험 발굴·개선 및 청렴 한 학교 체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 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학교운동부 부패 요인

개선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체육 종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공

협약식에는 윤영임 교육국장, 이홍열 북체육회 이종석 사무처장, 이경훈 마

을 위한 위험 요인 개선에 종목단체의 협력 강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육 회 및 종목단체의 기준 준수와 운영 △

목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렴한 동 실천 활동 추진 △그 밖에 양 기관 학교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 간 협력·발전을 위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임 교육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 감사관,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과 전 기로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 화하고, 학교운동부 부패 발생 요인을 케팅기획과장, 유준석 대외협력팀장이 시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 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Δ 부패 예방 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학교 운동부의 각종 경기 결과와 선수 선발 등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공정한 환경 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가을 축제인 2025 대동제 '학문체'가 내외국인 학생과 지역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문화교류의 장 전북대 축제 '학문체' 성료

내·외국인·지역민 등 역대 최대 2만 명 몰려

전북대학교 가을 축제인 2025 대 동제 '학문체'가 내·외국인 학생과 지역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 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학문체는 역대 최초로 전북 대 학생지원처와 국제처, 총학생회 가 협력해 내국인 학생뿐 아니라 외 국인 유학생, 그리고 지역민까지 아 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

주간에 진행된 '다문화 부스'에서 는 각국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문화 를 소개하고 전통 음식을 나누는 등 오감이 즐거운 문화 교류의 장이 펼 쳐졌다.

이어 열린 '외국인 패션쇼'에서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유학 생들이 런웨이를 걸으며 캠퍼스에 이국적인 활기를 더했다.

본 무대의 화려한 개막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밴드가 맡아 축 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의 열정적인 공연은 축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뜨거운 박수갈 채를 받았다.

이후 내국인 학생들의 수준 높은 밴드 공연과 댄스 퍼포먼스가 이어 지며 축제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올해 학문 체는 단순한 대학 축제를 넘어 내국 인과 외국인 학생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우리'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 가 있다"며 "특히 지역과 상생하는 '플래그십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만 큼, 지역민을 위한 밀착형 프로그램 으로 지역과 호흡하고 상생하는 대 학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 은 더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챌린지' 개최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실무자 멘토링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는 지난 25일 경영대학(학장 김효진) 주관 으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챌린지 밋 업데이'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혁신성장 플랫 폼인 전북 지니포럼(GENIE Forum) 연 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진대회를 앞두고 학생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접하고 대회 준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대 와 전북대 학생들 30명 이상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멘토로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멘토들과 그룹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투자 상 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역 대학과 금융 권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해 나가겠



전주대학교는 지난 25일 경영대학 주관으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챌린지 밋업데이'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크 관리 등에 관한 실질적 조언을 받 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 을 수 있었다.

품의 이해도, 포트폴리오 설계 능력, 리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 다"고 밝혔다.

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주대학교는 행사에는 경영대학 김효진 학장이 참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금융 /최성민 기자

우석대 류은환 동문, 세계 무대서 '금빛 찌르기'

수라카르타 국제 월드컵 휠체어펜싱 사브르 우승

동문(2017년 졸업)인 류은환(롯데지주) 선 수가 '2025 WA 파라 펜싱 수라카르 정 지었다. 타 월드컵 대회'에서 휠체어펜싱 카테 고리 B 체급 사브르 종목 금메달을 차지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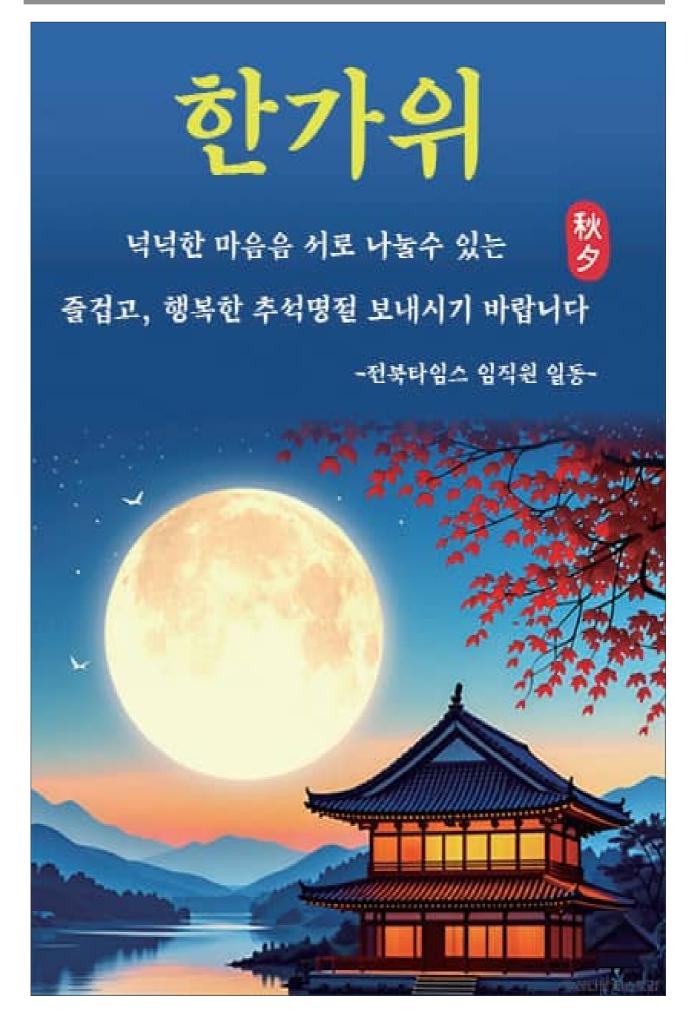
우석대학교 류은환 동문은 결승전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특수교육과 서 프랑스 선수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확 경험이 제게 든든한 뿌리가 됐다"며

문은 상파울루 휠체어펜싱 월드컵 사 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 브르 개인전과 태국 휠체어펜싱 월드컵 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플뢰레 개인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에서 열린 국제 한 바 있으며, 대학 재학 중이던 2014년 월드컵 시리즈로, 세계 각국의 최정상급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후 휠체어 펜싱에 입문해 꾸준히 선수

류은환 동문은 "대학에서의 배움과 "늘 응원해주신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 2021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류은환 동 기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

/최성민 기자



군산 자원봉사자 축제 한마당 '2025 한마음대회' 성황

군산시가 주최하고 (사)군산시자원봉사 센터(이사장 황진)가 주관한 '2025 군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지난 27일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군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자원봉 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상호 교류 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되 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지역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개인 봉사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나눔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태아트컴퍼니 어린이무 용단의 K-팝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인사말과 명랑운동회, 자원봉사자들이 직 접 참여한 장기자랑 무대(악기·댄스·노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행사에 함께한 주요 인사들은 자 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의미를 더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헌 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에 군산 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 고 있다. 여러분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 다"라고 밝혔다.

황진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봉사의 손길을 이어주신 덕분에 군산이 더 행복한 도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든든 히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수인성 감염병 예방 '총력'…명절 음식 보관 주의

정읍시보건소가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모 임 증가와 높은 기온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 이 높다며 시민들에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 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 혈성대장균 등으로 발생하며, 주요 증상은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이다.

특히 명절 음식은 장시간 상온 보관이나 부주의한 조리·보관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쉽게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어

각별한 수의가 필요하다.

시는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비 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망을 유지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손 씻기와 음식 보관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예방 수칙은 △식사 전·후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기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 냉장 보관하기 △조리 도구 철저히 소독하기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은 많은 사람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만큼 위생관리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예방 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내달 5~8일 '120 생활민원 상황실' 운영

군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 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120 생활 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 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 수도·하 수·청소·보건·환경·식품 등 8개 분야 6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도 특별 편성하 기로 했다.

시는 이들을 통해 긴급 도로 보수, 불법주 정차 차량 지도 단속, 긴급 상·하수도 보수, 쓰레기 처리 등을 실시해 연휴 기간 발생하 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 을 신청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 사 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며,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 '코앞'

274m 보행 전용 교량 야간경관조명설치 도심속야경 명소기대

익산시 중앙체육공원과 신흥저수지 를 바로 연결하는 '신흥공원 보행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공사 막 바지 단계인 '신흥공원 보행교'가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를 앞두고 오는 10월 14일 전면 개방된다.

보행교가 개통되면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대를 하나의 산책·여가 공 간으로 연결해 즐길 수 있게된다.

그동안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은 사이에 둔 큰 도로(선화로)로 인해 단 절돼 있었다.

이 때문에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을 오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 우려 등의 불편이 있 고 이용할 수 있다. 어왔다.

이에 시는 도심 속 산책로 연계를 위 해 지난해부터 '신흥공원 보행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보행교는 총 길이 274m, 폭 2.5~5m 규모다.

신흥공원 보행교는 도로로부터 5m 위로 떨어져 있다. 안전성과 쾌적함을 더하기 위해 법정 최소 기준인 4.5m를

지황차·쌍화시리얼 등

10여 종 LA 시장 진출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지황이 가공상

품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해외 판

정읍시는 지난 26일 오전 9시 감곡문

화체육센터에서 '정읍 지황 가공상품

해외수출 기념행사'를 열고, 정읍지황

이번 행사는 정읍지황을 활용한 가공

상품의 미국 LA 수출을 기념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해외시장 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 개척의 첫발을 내디뎠다.



익산시 중앙체육공원과 신흥저수지를 바로 연결하는 '신흥공원 보행교'가 모습을 드러 <사진=익산시>

0.5m 넘긴 높이로 설치됐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으며, 1㎡당 성인 5명(약 500kg) 이 동시에 올라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 는 강도를 확보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

특히 이동 약자를 배려해 완만한 경 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사로를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신흥공원은 익산시 대표 수변공간으 로 사계절 꽃밭과 시민참여 정원 가꾸 기 등으로 사랑받아 왔다.

이번 보행교 개통으로 중앙체육공원 과 신흥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산책로와 여가 공간의 활용도도 크게

정읍 지황 가공상품, 해외 수출 '첫발'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행

사에는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

계자, 가공업체,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수출 계획과

기대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해외시장

이번 수출 규모는 약 1억 7000만원으

로, 지황차와 숙지황 현미밥, 숙지황 현

미스낵, 정읍쌍화차, 쌍화시리얼, 쌍화

누룽지 등 10여 종의 가공상품이 포함

됐다. 정읍지황 국외 판촉홍보를 위한

이번 수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보행교에 야간 경관 조 명을 설치해, 신흥공원 일대를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10월 14일 익산문화 원 앞 광장에서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

정헌율 익산시장은 "신흥공원 보행교 는 단순한 육교가 아니라 시민과 자연 을 잇는 가교"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연을 이용해 새 로운 익산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지황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정읍지황은 조선시대에는

임금께 진상됐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

해질 정도로 가치가 높아, 오늘날에도

약용과 가공 활용가치가 큰 특산물로

유호연 부시장은 "정읍지황은 약재적

가치뿐 아니라 가공상품으로서도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품질 고도화와 해외 판로 개

척을 통해 정읍지황을 비롯한 지역 농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

/성읍=김성인 기사

자리 잡고 있다.

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내달 3일~9일까지

정읍시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보건소·의료기관·약국 141개 소와 함께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를 운영한다. 시는 명절 기간 의료 공백을 막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 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 의 준비를 갖췄다.

'2025년 추석 명절 비상진료대책' 에는 보건기관 12개소(보건소 1곳, 보건진료소 11곳), 정읍이산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89개소, 약국 40개 소가 참여한다.

특히 정읍아산병원은 지역응급 의료센터로서 연휴 내내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 된다.

이와 함께 각 보건기관과 지정 의 료기관은 일자별 비상진료를 실시 하고, 휴일지킴이약국 40개소도 지 정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 획이다.

시는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 황실을 설치·운영해 당직 의료기관 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이 를 통해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어 질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한 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 국 정보는 정읍시보건소, 보건복지 콜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www. e-gen.or.kr),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5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 개최

재배기간 문제점 사례별 분석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는 지난 25일 3개 벼농사 시범사업 단 지·쌀 채종포단지·선도농업인·농업 인상담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2025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농 업인평생학습센터 강당에서 개최했 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기술보급과 현장 출장을 통해 직접 조사한 육묘 및 물 관리 문제 사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

해결법을 소개받으며, 실질적인 도움 이다. 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선도 농업인은 "실제 농업현장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고, 앞으로 벼농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 을 배워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기후변화 및 병 해충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쌀 품 질 및 수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농업인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 화해 벼 재배 중 겪는 어려움을 신속 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현상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상담과 기술 지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

/군산=지송길 기자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시민 화합·단합 도모

타운홀미팅서 시장과 시민 즉석 문답도

군산시가 지난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하며 시작됐다.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 최했다.

민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산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 기념식, 2부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 로 진행됐다. 홀미팅 그리고 부대행사로 OMG(Oh

보체가 시민들과 함께 '군산시민의 노 래'를 부르며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사 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했다.

이어 시민 인터뷰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든 변화, 군산시 미래를 담은 기념영상 '함께 만든 변화, 군산시민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가 상 의폭을 넓혔다. 영돼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My Gunsan) 정책홍보부스 등 시민과 시장과 시민의 열띤 즉석 문답이 이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 졌다. 지역 경제살리기, 문화·관광 활

성화 그리고 지역현안 총 3분야를 놓고 1부 기념행사는 팝페라 가수팀 펜타 시민들은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 했으며, 강임준 시장은 매 질문마다 솔

특히 네이버폼으로 사전 접수된 시민 들의 건의 사항과 현장에서 벌어진 질 군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변화하는 의 응답은 민관이 함께 만든 양질의 정 책 대화라는 성과와 함께 진솔한 소통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민의 날은 군 영상이 끝난 뒤에는 군산시민헌장 낭 산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해주신 군산 독, 군산시민의 장과 모범시민상 시상 시민이 주인공인 날로 그 노고에 감사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 식, 기념사, 군산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 와 존경을 전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발맞춰 그 뜻을 2부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은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눌제' 보존·활용 방안 모색

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방안 은 '제방 형식과 관개 방법'을, 박세웅 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익 를 이어갔다. 산 황등제, 김제 벽골제와 함께 호남 삼호(三湖)로 불렸던 눌제의 역사적 과 공동체를 지탱해온 소중한 역사문 의미를 살피고, 보존·정비 방향을 모 화유산"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 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행됐 혔다.

정읍시가 고대 저수지 '눌제'의 역사 다. 권순강 건축문화연구소 여지 소장 ㈜동원건축사사무소 실장은 '보존 전 정읍시 주최, (재)전북문화유산연구 시 및 정비 활용 방향'을 주제로 발표

이학수 시장은 "눌제는 정읍의 농업 시된 성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보존과 학술대회는 최완규 원광대학교 명예 활용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차기 시금고 1금고에 농협은행 선정

2금고 전북은행…4년간 관리 전북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익산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 년간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로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두 은행은 앞으로 4년간 세입 다. 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각종 기 금 등 익산시 자금을 보관·관리한다.

1금고 농협은행은 2025년 본예산 기 준 1조 6,545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와 고향사랑기금을, 2금고 전북은행은 1,918억 원 규모의 7개 특별회계와 8개 기금을 맡게 된다.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8~19일 제안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농협은행과

제출했다.

이어 시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 대학교수,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

심의위원회는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 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등 5 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의하 고 평가했다.

시는 시금고 지정 공고를 거쳐 금고 시는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존 금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 후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시민 아이디어 시정에 담는다

내달 20일까지 5개 분야 시정발전 아이디어 접수

익산시가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한다.

익산시는 '2025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진 관부서 검토와 두 차례 심시를 거쳐 우 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triangle 인구·경제 \triangle 문화·관 은 창의성, 경제성, 적용 범위 등이며, 다.

제안 등 5개로, 익산 발전에 관심 있는 제안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기획예산과에 직접 방문 하거나 전자우편(kja6334@korea.kr)으 로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된다. 공모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해 소 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소 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 광 \triangle 복지 \cdot 교육 \triangle 환경 \cdot 건설 \triangle 공무원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한다. 우수

수여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로 문의 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시정 참 여를 확대하고, 익산시 발전의 동력이 될 빛나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공모전 을 진행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

총 468억원 확보 전국 19개 군단위 지자체 중 최대 규모

부안군이 환경부가 주관하는2026년 도 노후상수관망 정비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체 46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신규사업에 선정된 전국 19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압도적으로

최대 규모이며, 전북특별자치도내 단 지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해 매년 약 위사업지구별 최대 사업비로 사업대상 지역은 부안읍 시가지 구간외 행안 계 화·하서면 일원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다량 급수지역으로 2026년부터 2031 수관망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복구, GIS 구축 및 상수도 유 지관리시스템 개량 등이 시행된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

69만 톤의 누수량이 저감되고 약 1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안정적인 맑은 수돗물 공급이 예상된다.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년까지 6년간 88.2km 구간의 노후 상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 군민들의 물복 지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삶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안정적인 수 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건설로봇 산업 클러스터화 '시동'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건설산업 혁신 거점 도약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건설로봇 산업 클러스터화를 본격 추진하며 대한민국 건설산업 혁신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

이번 클러스터화는 연구개발(R&D), 실증, 기업지원, 인력양성, 산업 확산까 지 연결되는 종합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전개된다.

건설산업은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심 화, 안전사고 증가, 생산성 저하 등 구조 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소작업 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 험이 높아, 자동화·로봇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지난해 국 토교통부와 산업통상지원부가 공동 공 모한 '고소작업 건설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 개발 사업' 에 선정됐으며, 국비·지방비·민자 등 총 475.9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확장현 실(XR) 기반 인간-로봇 원격 협업 작업 이 가능한 고소작업 3종 로봇시스템(용 접·도장·내화뿜칠)을 개발하고,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에 실제 건설 현장 적용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 인프라(연구동, 실증센 터)를 구축을 본격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고소작업 분야에 국한하 지 않고, 다양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계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 다. 실제 건축 환경을 재현한 실험 공간 을 마련해 로봇의 이동성, 작업성, 안전 성을 검증하고, 주택·산업시설 등 여러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김제시는 단일 사업이 아닌 복합·확장형 건설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미 특장차 제1·2산업단지와 지 평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 모의 특수목적기계 산업벨트를 조성하

고 있으며,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스마 트팜 혁신밸리 등 대규모 산업·기술 인 프라를 갖춘 도시로, 지역 내 특수목적 기계·부품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로봇·XR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실증 병행을 통해 기업의 신 기술 검증·인증·상용화를 지원하는 개 방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건설로 봇 산업의 출발점이자 혁신 거점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며, "산업 클러스터화 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과 국가 건 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성과점검 행안부 장관상 '영예'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모범 지자체 위상 1

부안군은 2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 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 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 혔다.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 정 홍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 상,1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등을 평가해 지자체의 적극행정 이행력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이다.

기관별 규모를 고려해 1차 정량평가 에서 상위 15개 내외 지자체를 선별한 뒤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2차 정성평가 를 통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 으며 이 중 군 단위 지자체는 2곳이었다. 군은 2021년 하반기 성과점검, 가, 2025년 상반기 성과점검까지 4회 연 다.



에서 연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 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적극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2023년 실적 종합평가, 2024년 상반기 성과점검, 2024년 실적 종합평 2022~2024년 실적 적극행정 종합평가 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성과

로 입증된 적극행정 모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말보다 실천을, 계획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 체감도 높은 행정을 펼쳐 5년 연속 우수 기관 달성을 향해 도전하겠다"고 말했

/부안=신상수 기자

2 김제시변운등장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셔틀버스 노선도 보증, (S노선 및부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자상버스로 문헌합니다)

'김제지평선축제' 무료 셔틀버스 운행

교통편의 증진 도모

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열리는 '제27회 김제지평 선축제'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스를 운행한다.

올해 지평선축제 기간에 셔틀버 도모할 예정이다. 스는 평일 14대, 주말 20대를 15분 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중 앙병원을 경유지로 해 김제시청, 시 민운동장, 버스터미널, 김제역, 구산 사거리부터 벽골제까지 오기는 총 5 개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에는 하방삼거리부터 벽골제 구정문까지 운행하는 마을 순환버스와 축제장 진입 시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셔틀버스 전용차 선을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벽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10 골제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터미널과 구산사거리 에서 승·하차하는 셔틀버스의 경우 있도록 축제 기간 중 무료 셔틀버 하루 12회 저상버스를 도입해 장애 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 시 관계자는 "이번 김제지평선축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개최돼 많 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주차혼잡과 교통난을 최 소화하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 울였다"며 "가급적 셔틀버스를 이 용하시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 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고창군이 26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 벤션 파크홀에서 열린 '2025년 지역 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 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주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세부 및 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계획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 괴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되는 것으로,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 육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틀니 의

아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의 날 캠 페인 운영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 노인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취약계 층 대상 무료 구강검진 및 치료지원 민의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료비 지원사업 △어린이 충치예방(치

유병수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지 역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 고창군을 포함한 31개 지자체가 우수 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강보건사업 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 겠다"고 밝혔다.

/고장=백송규 기사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군 고향 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부안만의 차 별화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고향사 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 기간 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부안 군청 3층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 력팀으로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 면 된다.

현재 부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품목을 생산, 제조 및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이며, 모집 분야는 지역특 산품과 부안군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 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등으로

따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기존과 차별화된 더욱 다양한 상품의 접수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부안군 내 의 다양한 업체가 답례품 업체로 선 공개모집 내용은 10월 10일까지 군 정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 군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 장실사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평 가·심의를 거쳐, 11월 말 최종 공급

> 한편 부안군은 현재 47개 업체, 85 종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 자에게 제공했다.

> >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한다

10월부터 차등 지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외국인 가정 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외 있다"고 말했다. 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 기회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 가겠다"고 밝혔다. 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액은 연령별 부모보육료의 50%로 14만원에서 최대 28만3천500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은"이번 정책 위해 10월부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은 단순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 이 사업은 김제시에 90일 이상 합법 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 가정의 0~5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또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 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제공해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와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곤충 탐사 기획전 '네그로스 스토리 2.' 개최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부안누에타운에서 오늘부터 제23회 손민우 박사의 세계 오지 곤충 탐사 기획시리즈 '네그로스 스토리 2.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네그로스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6배 크기로, 필리핀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섬 중앙에는 활화산 칸라온(Kanlaon)이 자 리잡고 있으며, 서쪽은 사탕수수 생산지로, 동쪽은 인적이 드문 원시 정글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긴 꼬리를 자랑하는 마에나스긴꼬리누에나방, 피터팬의 요정 '팅커벨'이라는 별칭을 가 진 셀레네옥색긴꼬리산누에나방, '나방의 왕자'라 불리는 잠파산누에나방, 고급 야생 실크를 생산하는 후리티누에나방을 비롯해 멋쟁이사슴벌레 삼총사, 왕지네, 왕전갈, 살 인벌, 과일박쥐 등 120여 종 300여 마리가 사진과 표본으로 선보인다. 총 26개 작품으 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미지의 곤충 세계를 직접 탐험하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할 예정 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5년 추석 황금연 휴를 맞아 부안군이 준비한 이번 기획전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선물 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추석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14일까지 농공단지, 오염취약지 역 등을 중심으로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추석연휴 기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과 취약시간대를 악용한 환경오 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 감 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단계 기간인 연휴 전 10월 2일까지 취약 지역 순찰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한 순찰 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홍보활동을 중점 전개하며, 2단계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는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한다 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연휴 이후 인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환경오염물 질 배출 시설 운영을 어려워하는 중소사업 상에 대한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성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시민이 안심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이 번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 방장산 가치 홍보 앞장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고창군 생물권보전 지역 방장산의 가치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의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 전문가의 인문, 자연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생물종 을 조사해보는 생태관광 행사인 "고창 바이 오블리츠 in 방장산" 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방장산 생물권 지도 제작 △ 국민 누 구나 쉽게 방장산의 인문자연환경을 알 수 있도록 "키워드로 본 방장산" 발간 △ 지역 주민 대상 방장산 산림교육이 추진될 예정 으로 전북생명의숲,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장성숲체원) 등과 협업해 진행될 예정 이다.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 지역인 방장산은 고창군에서 가장 높은 산 (743m)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의 도계와 고 창군, 장성군, 정읍시의 시·군경계가 되는 산이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패러글라이 딩장(억새봉), 국립방장산자연휴양림 등 많 은 국민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방장산의 생태가치 확산과 관광자원화의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을 영광이다"라고 밝히 며 "금번 방장산 사업을 시작으로 고창 유 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확산시키 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제19회 전북도장애인체육대회 성황

2천여명 선수단 참가 태권도등 15개 종목 겨뤄

전북 고창군이 지난 26일 오후 고창군 립체육관에서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을 성대하게 개 최하고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행복도시 고창에 서 감동가득 희망체전'이라는 슬로건 아 래 28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열렸다.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해 게이트볼, 태권도, 보치아 등 15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열정과 도전의 스포 츠 정신을 펼쳤다.

문화예술단체 디새온의 가야금과 하모 니카 연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으며, 14개 시군 선수단의 입장식이 힘차게 진 육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이어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정종만 부

전북 14개 시군에서 선발된 약 2000 회장의 개회선언과 심덕섭 고창군수의 환영사, 주요내빈의 축사가 이어지며 대 회의 열기와 감동을 더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는 장애 인 체육 발전은 물론, 고창군의 스포츠 개회식은 고창군을 대표하는 장애인 외 관광 인프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대 회를 운영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 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가족센터 개관 '전 세대 사랑방'

군민복지·교육·문화거점마련 생활SOC선정후5년걸쳐완성 도서관·공동육아·상담공간집약

'순창군 가족센터'가 지난 26일 개관 식을 갖고 공식 문을 열었다.

가족센터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교육·문화의 거 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친 화적 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0년 2월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약 5년간의 과정을 거 쳐 완공됐다.

다. 1층에는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 터,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이 마련돼 교육 정 문화재인 충신리 석장승(제101호, 남)과 남계리 석장승(제102호, 여)이 전



'순창군 가족센터'가 지난 26일 개관식을 갖고 공식 문을 열었다.

시돼 역사·문화적 가치를 더했다.

센터는 층별로 기능을 특화해 운영된 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민 운영될 예정이다. 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전문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과 정서적

3층은 그동안 여성회관, 노인복지회

활용된다.

관, 옥천미술관 등에 분산되어 있던 군 2층은 가족센터 사무공간, 교육실, 상 민 사회교육 기능을 통합했다. 생활양 담실을 집약 배치해 복지와 상담 기능 재, 광목자수, 사군자 등 11개 강좌가

최영일 순창군수는 "가족센터는 세 대를 아우르는 군민 모두의 사랑방이 과 돌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 지원까지 가능한 종합 복지 공간으로 자, 가족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는 든든 한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부장관상'

고정밀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구축 국비10억확보첨단지도사업확장

가 주관하는 2025년 K-Geo 페스타에 가 높은 공간정보 구축으로 좋은 평가 상 수상은 남원시 공간정보 정책의 성 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국토교통 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공간정보 활성 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기초행정

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고정밀 수치 첨단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 지형도 제작사업, 시각장애인의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지도 구축사업 등 각 계획이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국토교통부 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활용가치 를 받았다.

남원시는 공간정보 기반 정책 사업을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챌린지 공모 력 강화와 시민 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 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앞으로도

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장관 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또한 최근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쟁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삼례 체류형관광 '배케이션' 성공적 첫 발

'배움+휴식' 체류형관광 프로젝트 인플루언서 15명 초청 첫 시범운영

완주군이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삼 례 너머로, 배케이션(배움+휴식) 투어' 를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투어는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 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 되는 4개년(2025~2028) 체류형관광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스테이 삼례'라는 슬로건 하에 기획됐다.

첫 회차에는 구독자 50만명 규모 유 튜버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과 마음의 균형을 다진 뒤, 삼례 대표 촌 일원이 단순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 15명이 참여해 삼례만의 자연과 문화, 간을 가졌다.

관광거점을 삼례 이야기꾼의 재미난 유했다. 해설과 함께 둘러봤다. 이어 삼례 브랜 와 문화, 먹거리를 체험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삼례문화예술촌 잔 감을 전했다. 디마당에서 싱잉볼 요가 명상으로 몸



완주군이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삼례 너머로, 배케이션(배움+휴식) 투어'를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완주군>

역사 속에서 특별한 배움과 휴식의 시 로운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투어 전반을 통해 배움과 촌, 삼례책마을, 비비정 등 삼례 주요 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

드 창작공연 '한방울의 비밀'을 막걸리 힐링이 함께하는 이번 투어는 일상에 월까지 총 5차례 일반인 대상 투어를 테마 석식과 함께 즐기며 삼례의 역사 큰 영감을 주었으며, 새롭게 만나는 삼 례를 많은 분께 추천하고 싶다"고 만족 의는 완주군 문화역사과 문화마을팀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례문화예술

맛집을 방문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새 니라 진정한 의미의 체류형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삼례만의 역사와 자연, 문화 첫째 날, 참가자들은 삼례문화예술 힐링을 동시에 경험하며 삼례의 매력 가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 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편, 완주군은 이번 시범운영에서 참가자 중 한 인플루언서는 "배움과 얻은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11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신청 및 관련문 (063-290-3861)에서 가능하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지역자활센터, 신규 자활근로 사업장 개점

이날 현장을 찾은 김 부의장은 우산 며,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항구적인 대

그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 계와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교마을 [스쿨튜브] OPEN 방송

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완주군 스쿨튜브'는 단순한 AI

활용 교육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

접 콘텐츠를 기획부터 완성까지

경험하며 실질적인 '콘텐츠 파이

프라인(Content Pipeline)'을 구축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교육에서

학부모들은 방송 설계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타이

틀·로고·영상 인서트 등 멀티모달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시도

는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AI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

리였고,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AI

협업을 통해 완주의 미래를 함께

다비체육관 준공 이후 자연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 때

김재천 부의장은 "군민의 안전을 지

켜야 할 체육관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

또한 그는 "건립 당시 사전 배수 설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기관 진단, 우

수처리 체계 재정비, 모니터링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완주=김명곤기자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다 상습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스쿨튜브' 개국 AI 미래교육 새 지평

이날 방송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Multi-modal) 디지털 에셋을 AI

완주군 김재천 부의장, '물난리' 봉동 낙평리 점검

학부모 패널, 그리고 AI 패널이 함 로 직접 제작했다.

개국방송서 AI 토론 모델 선봬

학부모, 콘텐츠 기획·제작 참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

장 임성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AI 실무자 양성

과정 교육생들과 함께 '완주군 스

지난 25일 열린 개국 방송은 '지

역인재육성에서, 지역정주까지, 완

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진행

께 참여해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토론 모델을

선보였다. AI는 완주군의 10만 완

주시대 개막, 수소특화 국가산업

단지 유치,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교육 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선도

도시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분석하

반다비체육관 준공 후 상습 침수

"근본원인파악항구적대책시급"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4일 봉동읍 낙평리 반다비체육관 인

근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도 없이 장화 차림으로 논둑을 따라

걸으며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청하며 물길과 배수 상태를 직접 확

해당 지역은 약 6만3,000㎡(약 2만

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으로, 반 덧붙였다.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했다.

쿨튜브'를 공식 개국했다.

돼 큰 관심을 모았다.

청년, 중·장년층 자립 발판 마련 공모 사업비 확보 리모델링 조성

남원시는 지난 26일 교룡산 국민관 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조성했다. 광지(산성순환길 713)에서 자활근로 사업 신규 사업장인 '파스쿠찌 카페' 와 '3분마트'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점식에는 남원시장, 시의장,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자활근로 참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 업 공모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해 자 활사업단 매출액 등을 활용, 시설 리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에 문을 여 는 자활근로 사업장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 휴 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활근로 참 여자에게는 자립 발판이 마련될 것이 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전통시장 공공카트 대여 서비스 도입

이용객 불편 덜고 시장 활성화

순창군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 편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순창시장에 공공카트 대여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사업은 장보기가 불편한 고령 자와 여성,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납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는 누구나 이용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은 주민 친화적 정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상인들 는 방침이다.

공공카트 대여는 접이식 카트와 일 반형 손수레를 시장 내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창시 장 버스휴게실 인근에 일반 카트 30 대, 손수레 30대 등 총 60대를 배치했

으며, 모든 카트에는 도난 방지를 위 한 인식표와 GPS를 부착해 안전한 관 리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시장 방문객 이 대여 대장에 기본 인적 사항을 기 재하면 카트를 빌릴 수 있으며, 장보 기를 마친 후에는 지정된 거점에 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큰 혜택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사업은 작은 아이디어이지만 군민 생활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 책"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퇴거 위기 막았다" 아동 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초록우산 어린이재 단 전북본부에서 추진하는 사례지원 사업 에 선정되며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던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180만 원을 지원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사례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 돌봄 부재 등으로 발 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 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 학 습,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초록우산은 지역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 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복지사 각지대 해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혜 지역사회 돌봄 지지체계를 구축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사례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인 한 부모 가구로 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활 동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저소득 및 부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복지 사 각지대 가구였다. 특히 임대 보증금을 마련 하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여있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 발 굴·연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방침이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돌봄 사각지대 최소 화 등 아동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추석 앞두고 섬진강 용궐산 일대 환경정비

순창군 공무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섬진강 용궐산 일대 환경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25일 용궐산 주차장과 섬진강 전망 바위, 군락지 일원에서 2025년 추석맞 이 섬진강 환경정비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

이번 행사에는 실·과·읍·면장과 팀장 등 190여 명이 참석해 하천 주변의 쓰레기와 잡풀을 제거하고 불법 투기물을 정비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안전 수칙을 공유한 뒤 현장 별로 나뉘어 정비에 나섰으며, 섬진강 전망 지 주변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주요 구간 을 집중적으로 정리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방문 객들이 찾는 용궐산과 섬진강을 깨끗하게 가꿔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 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지리산 허브밸리, 가을꽃 만개 체험·이벤트 다채 힐링 명소 주목

지리산 허브밸리가 삼색 국화와 오리지 널 코스모스로 가득 물들며 방문객들을 맞 이한다. 화려한 가을꽃 경관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선보이며 남원을 대표하 는 가을철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허브밸리 진입광장과 원형광장에는 삼색 국화가, 4ha 규모의 오리지널 코스모스 꽃 단지에는 가을 정취가 펼쳐진다. 코스모스 단지는 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며 방문객 모 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꽃 경관뿐 아니라 체 험과 이벤트도 풍성하다. 복합토피아관 열 대식물원에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해설사가 열대식 물원 해설투어와 계절 꽃으로 직접 식물을 심어보는 반려식물 키우기 체험을 예약제 로 운영하고 있다.

230여 종의 식물이 전시된 열대식물원은 식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반려식물 체험은 생활 속 자연과의 소통을 돕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가을 한정 이벤트도 다채롭다. 허브밸 리 내 6곳을 돌며 스탬프를 모으면 선착순 5,000명에게 메리골드 화분을 증정하는 스 탬프 투어가 진행되며, 허브밸리에서 직접 재배한 로즈마리를 활용한 허브차 시음 행 사도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바이오단지 입주기업, 해외수출 본격 시동

㈜원스킨화장품 첫 물량 20만불 26일 베트남수출 선적식 개최

남원시는 지난 26일 노암산업단지내 에 소재한 남원 바이오산업특화단지에 미국, 멕시코, 두바이, 브라질 등 해외 서 입주기업인 ㈜원스킨화장품의 베트 여러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 업을 통해 남원 바이오기업이 해외시 남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스킨화장품(대표 김경희)은 바이 오산업특화단지 입주기업으로 그동안 남원시와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추진 한 수출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지원 받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60만 달 다. 러(한화 92억원) 규모의 수출성과를 내 기업이다.

만 달러(한화 2억 8천만원) 규모의 제 출 규모는 55억 달러(한화 7조5천억원) 품을 수출하는 의미있는 행사이다. ㈜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원스킨화장품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수출 성과가 지역기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 해외 판로개척은 물론, 남원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최근 세계 뷰티시장은 어려운 경제상 뷰티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며 성장한 남원의 대표적 바이오 뷰티 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다. 기록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선적식은 첫 수출 물량으로 20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

남원시는 이러한 세계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앙정부의 지원사 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남원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바이오 지원하고 남원 바이오산업특화단지를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

/남원=정하복 기자

㈜미래하이텍,

진안군에 장학금 5천만원 기부

㈜미래하이텍에서 지난 26일 진안사랑장 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5천만원 을 기부했다.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반도체를 비 롯한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조 장비 생산업 체인 ㈜미래하이텍을 경영하고 있는 최형 진 대표는 "진안군 용담면 출신으로서 후 배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며, "지역 학생 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작은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 은 "5년 연속으로 큰 금액을 기부 해주시 며, 진안의 인재 양성에 큰 힘을 보태주시 는 최형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기부 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이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 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제34회 무주군 설천면민의 날 행사 개최

제34회 무주군 설천면민의 날 행사가 지 난 27일 설천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 최됐다.

설천면체육회(회장 최낙규)가 주관한 이 날 행사는 설천면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 모하고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 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안호 영 국회의원과 윤정훈 도의원, 김철호 무 주군재경향우회 회장과 박지용 설천재경 향우회 부회장 등 출향인, 그리고 설천면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인근 지역인 충북 영동군 용화면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풍물놀이와 밴드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 는 기념식과 명랑경기(판 뒤집기, 훌라후프 등), 공연(초대가수 김지현, 라인댄스, 태권 도시범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전상호 씨(내북마을)가 설 천면민의 장 산업근로장을, 최완철 씨(보안 마을)와 김문배 씨(하평마을)가 향토공익 장을 이현의 씨(삼공마을)가 효행 선행장 의 주인공이 됐다.

또한 김일환 씨(배방마을)와 양봉자 씨 (하평마을), 하남수 씨(내양마을), 박미자 씨(삼공마을), 신범하 씨(월현마을), 이미선 씨(하평마을)는 무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 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박원용 씨(내양마을)와 박종용 씨(외양마 을), 김경자 씨(삼공마을)가 봉사활동에 적 극 앞장서며 남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해 무 주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박종회 면장은 "면민 화합과 설천면 발전 을 도모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면민들 서 로가 마음을 더욱 가까이 나누고 지역 역 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을 믿는다"라 며 "우리의 관심이 설천면민의 행복을 확 장하는 동력이요, 참여가 바로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맞대고 마 음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얼굴없는 천사, 매년 15년간 쌀 기부

진안군 진안읍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백미 기부가 15년째 이어졌다.

진안읍 관계자는 "익명의 기부자가 추석 을 맞아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쌀 20kg, 30포(18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 다. 익명의 기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15년간 쌀 포대와 간단한 메모만 남 기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해왔다.

이에 진안읍은 기부받은 쌀 30포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에 신속히 전달 했다. 쌀을 받은 한 주민은 "덕분에 명절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상식 진안읍장은 "이번 추석도 잊지 않 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해 주신 기부자께 감사드리며, 후원 해주신 물 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 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금강수계 관리기금사업 선정

상전면 LPG 배관망 도로 재비산 저감사업 선정

진안군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 관한 "2026년도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서 2개 사업이 선정되며 기금 12여 억 원을 확보했다.

역 내 10개 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됐 으며 총 19개 사업이 접수된 가운데 6 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진안군은 △ 상전면 소재지권역 LPG 배관망 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2개 사 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업은 기금 9.1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13 억원 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개(문화, 회사, 원주평) 마을의 LPG배관망 구축 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연료를 공급한다.

이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난방비 절 감에 도움이 되며 낙후된 상전면 소재 이번 공모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 지 지의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 완화와 주거환경개선으로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기금 량의 도로 노면 청소차를 도입하는 사 업이다. 군에서 그간 노후되고 적은 용 △상전면 소재지권역 LPG 배관망 사 량의 도로 청소차 1대를 활용해 도로의

비산먼지를 청소해왔으나, 신규 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에 따른 관리 구 간의 증가로 작업 효율이 저하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번 사업 선정으로 용담호 주변 주요 도 로의 비산먼지 저감 대책에 더욱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 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용담댐 주 변 주민들의 생활 복지가 한층 더 상승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 약 3억원을 투입해 기존에 비해 큰 용 게 꼭 필요한 금강수계 관리기금사업 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지사면 원산마을 치매안심공원 준공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 건강 증진 공동체 활성화

임실군이 지사면 행복(도약)마을 만 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원산마을 치매안심공원 준공식을 지난 24일 지 사면 원산마을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 해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박정규 도의원,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지역 주민 등 70 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도약)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5 억원의 군비를 들여 2022년부터 4년간 진행됐으며, 치매안심공원 조성, 마을 회관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태양광 설치,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 건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됐다.

행되는 농촌 지역에서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 너기' 기구가 대표적이다.



치매안심공원 운동기구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 된 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특화 운동기구 10종이 설치되어 치매안심공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 있으며, 특히 균형감각과 근력, 인지 능 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외나무다리 건 다.

아울러 올바른 시설 이용을 돕고 건 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원산마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

/임실=한병열 기자

제19회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역대 최대 성과 달성

방문객 32만 명 장수한우 등 농특산물 완판

장수군은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제19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가 나 흘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수의암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진 행됐으며, 총 32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우와 사 과,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를 대표하는 레드푸드를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들었다.

장수한우와 사과를 비롯한 농특산물 은 완판됐고, 축제장 매출액 전반은 30 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추석 명절 2주 전에 축제가 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린 덕분에 사과를 비롯한 장수군 특산 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축제장 다



체해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한우마당과 사과마당을 대형 홀 억 원을 돌파해 명실상부 지역경제 활 텐트로 구성해 늦더위와 우천에도 쾌 적한 환경 속에서 관람객이 먹거리와

품 판매 실적이 높아져 지역 경제에 한 주로 재편하고, DIY 사과 팔찌·키링 만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층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올 들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가 높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해 축제는 경관과 시설, 프로그램 전반 쪽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

군은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으 적용으로 관람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 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은 "32만 명 이 다녀간 이번 축제를 통해 장수의 레 드푸드와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체험 프로그램 역시 인기 콘텐츠 위 알릴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군민과 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제43회장수군민의장'수상자선정

오재영·이정관이종순·한병원선정

장수군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 에서 제43회 장수 군민의 장 본심 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부문에 서 군민의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수 군민의 장은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께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1982년부터 총 42 회에 걸쳐 155명의 영예로운 수상 자를 배출하며 지역사회의 자긍심 26대 재경 장수군민회 회장을 역임 을 높여왔다.

재영(남·77세) △산업공익장 이 정관(남·64세) △애향장 이종순 (남·67세) △효열장 한병원(남·73 세) 씨 등 총 4명이다.

는 현재 사단법인 의암주논개정신 선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주논개 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충효교실과 일요 학교 운영을 통해 장수향교 발전에 다. 기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

며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산업공익장 수상자인 이정관 씨 는 계북면 토마토연구회원으로 활 동하며 재배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 지역 토마토 재배 확대와 농가 소 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계북면 주민 자치위원회장을 역임하며 사회단 체와의 협력으로 지역 축제를 성공 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공동체 활성 화에도 앞장섰다.

애향장 수상자인 이종순님은 제 하였으며 현재는 재경 장수군민회 올해 수상자는 △문화체육장 오 고문으로서 장수군 향우회 화합과 발전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효열장 수상자인 한 병원님은 96세의 노모를 지극정성 으로 봉양하고 있으며, 1971년부터 문화체육장 수상자인 오재영 씨 시작된 산서면 이룡마을 경로 효잔 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금까 지도 해마다 효 잔치, 새해 합동 세 배 등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이룡마을에 이어져 오는데 기여했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여

서울부산 5곳서 15개 업체 참여

임실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 울과 부산 지역 5개소에서 열리는 추 석맞이 임실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고 홍보에 나서 고향 농가의 판로 확 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광장(9.24.~9.26.), 서울 강서구 마곡광장(9.25.~26.), 서울 양천공원(9.25.~26.), 부산진 구청(9.29.~9.30), 서울 마포구청 (9.30.~10.1.) 등에서 순차적으로 열리 고 있다.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임실 축협 및 지역 농가 15개 업체가 참여해 치즈와 유제품, 육류, 전통 장류, 한과 등 100 여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10~20% 저

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강서 구 마곡광장에서 열린 직거래 행사에 는 재경임실군민회원 5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을 구입하 대와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탰으며, 전북 사랑도민증 가입 및 고향사랑기부금 에 적극 참여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지역 임 실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추석 준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에 농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행복한 추석 맞이 나눔 연휴 종합대책 추진

무주군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다"라며 "연휴에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추석 명절 보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 통해 군민과 귀성객 여러분이 안전하 난 22일부터 '1마을 1담당' 등을 통해 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것"이라고 밝혔다. 을 방문해 안부 및 물품 나눔을 실천 하고 있다.

의탁 독거 어르신과 사회복지생활(이 등 분야별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용 시설), 가정 위탁 세대, 저소득 독거 어르신 등을 찾아 생활 불편 사항 등 9개 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으 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명절 이웃돕기 결연창구 등도 비롯한 귀성객 편의와 직결된 물가·교 개설·운영하는 등 지역 내 기관·단체, 통, 재난재해, 쓰레기, 상하수도, 의료, 주민들이 동참하는 이웃돕기 분위기 를 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 다. 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자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은 1,941세대, 위문 대상 사회 선을 위해 위임국도 1개 노선을 비롯 복지 시설은 290곳에 이른다.

천에 앞장서 모든 군민이 행복한 추석 기능 저하 시설물도 정비 중이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무주군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 휴를 위해 종합상황실(1상황실, 7개 무주군 공무원들은 담당 마을의 무 반 28명 1일/10. 3. ~9. 운영)을 꾸리는

무주군에 따르면 재해·재난, 의료 등 로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해 군민을 가축전염병, 사건·사고 등에 대응한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개 해 지방도 4개 노선, 군도 12개 노선 황인홍 무주군수는 "나눔과 돌봄 실 등 총 17개 노선에 대한 파손 도로 및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로컬푸드 진안점,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9월 29일~10월 5일까지 정육제외전품목20%할인

진안군은 "진안로컬푸드 진안점"(진 안읍 학천변길 37-9)에서 민족 최대 명 절인 추석을 맞아 군민과 소비자들에 게 합리적인 가격과 풍성한 혜택을 제 공하기 위해 추석맞이 특별 할인행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 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까지 7일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동안 정육을 제외한 전 품목(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20% 특별할 개장한 이후 진안산 농특산품 등을 중 인이 적용된다.

객 감사 차원에서 행사 기간 동안 5만

이번 할인행사는 29일부터 내달 5일 원 이상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진안로컬푸드 진안점은 지난해 9월 간 유통 과정없이 납품하며 생산자에 할인 금액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게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 추석 장보기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꾸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가을철산림 내불법행위특별단속실시

취와 등산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 15일 부터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활용하고 주민 제보를 병행하는 등 단 한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 채취 행 행위 Δ 산림 내 취사 행위 Δ 입산통제 구역 무단입산 행위 △쓰레기 투기 등 된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3개반 21 명을 편성해 관내 주요 임산물 자생지,

임실군이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채 등산로, 산림 취약 지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 또한, 드론과 CCTV 등 감시 장비를 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 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 해지며,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취사 행 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 2백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4일 부안스포츠파크 실내체 육관에서 열린 '2025년 부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에서 부안군여성단체 협의회가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 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서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단체 명의로 100만원, 박양순 협의회 회장이 개인 명의로 100만원을 각각 기부하며 미래 지 역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 15개 여성단 체 2,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있으며, 평소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지역여성 역 량 강화교육 △취약계층 지원 봉사활동 △환 경정화 및 지역축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꾸 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의 신뢰와 호응을 얻 고 있다.

특히 지역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 업에도 적극 참여해 '나눔과 실천'을 선도하는 모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수골프리조트, 취약계층에 '1004박스' 300세트 기탁

장수골프리조트(대표 이용규)는 장수군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004박스' 300세트 를 기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1004박스'는 사골곰탕 등 식 료품과 세제·샴푸 등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되 었으며, 기탁 물품의 가치는 총 1천5백만 원에 이른다.

장수군은 이를 관내 취약계층 300가구에 배 부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필요한 가정에 적시에 전달될 수 있 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기탁은 민간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 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사례로, 어려 운 시기에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 며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다.

이용규 대표는 "장수군민을 위해 꾸준한 나 눔 활동을 펼치며 더 많은 사랑을 지역에 환원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제39회928향토수복희생호국영령추모제거행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경내에서 제39회 9.28 향토수복 희생 호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했다

를 비롯해 황재현 장수경찰서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 기 관·단체장과 산서면 의용소방대 원 및 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엄숙 모제는 장수군을 대표하는 호국행 한 분위기 속에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추모제는 장수군 9.28 수복 고 있다. 동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초

헌관에는 최훈식 군수, 아헌관에 는 한국희 군의원, 종헌관에는 황 장수군은 지난 26일 산서파출소 재현 장수경찰서장이 맡아 전통 예법에 따라 경건하게 봉행됐다.

행사는 6.25전쟁 당시 지역주민 을 지키다 순국한 고(故) 이완기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경찰관 등 15위 호국영령을 기리 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로 39번째를 맞이한 이번 추 사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민의 애국 심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

> >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이선희 작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서 수상

출품작 '사랑채 2층장'

로그램 수강생이 '제55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의 주인공은 진안군 평생학 습 프로그램 '장인정신 깃든 전통한 지 공예' 수강생인 이선희 작가로, 출품작 '사랑채 2층장'은 전통 한지 를 소재로 고유 기법과 현대적 디자 인을 접목해 높은 예술성과 완성도 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은 국가유산 청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 진안군이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 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경연 무대로, 1971년부터 이어져 온 권위 있는 대회다.

> 이번 수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 취를 넘어, 군이 추진해온 평생학습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역 민이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창작 역량을 키우고, 전국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테크로스환경서비스등 고창군에 2천만원기탁

용성)와 ㈜이피에스솔루션(대표 박변주)이 지난 25일 고창군청을 찾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데 작은 보

기업들은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 리대행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는 지역 학생들의 성장에 달려 있 공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 장학금 기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 생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테크로스환경서비스(대표 이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장학 금이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박변주 대표도 "고창군의 미래 께하며 인재 양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



임실치즈농협,임실군에총2천만원기탁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이 의 학업 성취와 자기 계발을 지원 지역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 을 위해 뜻깊은 기부에 나섰다.

임실치즈농협은 지난 24일 임실 군 애향장학회와 임실군 불우이웃 돕기에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 원을 기탁했다.

희망을 키우고, 경제적 어려움으 로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

하는 데 사용되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생 활 안정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농협이 매년 꾸준히 장학사업과 나눔 활 동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 이번 성금은 미래 세대의 꿈과 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학 생들의 미래를 밝히고, 어려운 이 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산불 예방 수



김제신용협동조합,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에 격려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김제신용 협동조합(이사장 백강석)이 2차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 15명에게 외식상품권 을 전달하며 격려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소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 차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김제신용협동조합이 매년 김제시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유미)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동기 강화를 위해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올바 른 소비습관과 건전한 경제관념 형성을 위한 금융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백강석 이사장은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떠 난 청소년들에게도 지역사회가 따뜻한 관심 과 응원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청소년이 행 복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 할 수 있도록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 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시새마을회, 추석 맛이 선물꾸러미 300개 전달

익산시새마을회(회장 방성봉)는 추석 명절 을 앞두고 지난 26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선물 꾸러미 300여 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방성봉 회장을 비롯해 홍선옥 익산시새마을부녀회 장, 홍정욱 익산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송 정운 새마을문고 익산시지부장 등이 함께했

선물꾸러미는 불고기, 김치, 과일 등으로 구 성됐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도 자체적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해 소외된 이 웃들에게 나눔을 이어간다.

방성봉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이 담긴 꾸 러미가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회는 나눔과 봉사 정신을 실 천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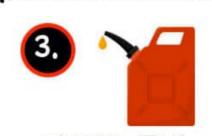
어미서나 제필 사항를

산 초일부터 정상III저,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통제 구역 안내 준수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흡연 금지

〈一事一言〉



한국 극우세력은 왜 중국을 혐오하는가(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최근 한국은 도심에서 벌어지 는 극우세력의 혐중시위로 골머 리를 앓고 있다. 명동관광특구협 의회는 "시위대가 특정 국가 관 광객에게 폭언하고 공포감을 조 성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 리고 있다"면서 "인파가 밀집된 좁은 도로에 많게는 5백 명의 시 위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안 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하소 연했다. 혐중 시위대는 중국과 중 국인 관광객들에게 폭언과 위협 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의 국무회의에서 혐중시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한 깽판이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전에 한국의 극우세력은 북 한을 주적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반북, 혐북 분위기를 고취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극우세력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한국 극우세력의 첫째가는 적은 북한 이 아닌 중국으로 바뀌기 시작했 다. 이런 변화는 냉전이 해체되면 서 미국이 최대의 경쟁자로 부상 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 을 최우선시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원래 자생 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다. 즉 한국 의 극우세력은 서구의 극우세력 처럼 자국의 독점자본에 기초하 여 발생하고 성장한 정치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극우세 력은 국내 독점자본이 부재한 상 태에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 어지고, 미국이 손때 묻혀 키워 내고 조련해온, 철두철미한 매국

세력이다. 서구 사회의 극우세력 은 자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 하기에 부르조아 민족주의 성향 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예를 들 면 과거에 독일 독점자본을 대변 했던 히틀러 극우집단은 민족이 나 국가를 중시하고 내세우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라도 독일 독점자본가계급의 이 익을 실현하려 했다. 반면에 한국 의 매국적 극우세력은 단 한 번도 한국의 독점자본을 대변했던 적 이 없다. 그들은 한국의 자본가계 급이 아닌 미국 독점자본가계급 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의 하수 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한 국의 매국적 극우세력은 자기 이 념이나 주장은 없고 미국의 정치 이념이나 주장 등을 그대로 수입 하고 베껴서 앵무새처럼 떠들어 댄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면 북한을 향해 악을 쓰다가 미국이 방향을 틀어 중국을 더 적대시하 면 중국을 향해 악을 쓰는 것이 다. 한국 극우세력의 혐중은 한국 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 이 아니라 미국의 반중을 수입해 온 것에 불과하다.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 정이다. 그것도 자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척이나 싫어하고 미워 하는 감정이다."(김종갑, 『혐오 : 감정의 정치학』, 2017, 은행나 무, 118쪽)라는 말이 보여주듯, 혐 오는 아주 심하게 싫어하고 미워 하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기본적 으로 사람에게 해로운 대상을 혐 오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 롭다고 판단하는 대상에 대해 싫

다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혐오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사 람에게 해로운 것들 중에서 대표 적인 것은 질병, 부패, 죽음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질병과 부패, 죽음을 싫어하고 나아가 혐오하

처음에 혐오는 사람의 육체적 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서 발생했다. 사람이 심한 악취나 상한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연수 에 있는 구토중추가 자동적으로 구토를 유발하는데, 이때 체험하 게 되는 혐오감은 해로운 것으로 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일찍이 홉스와 데카르트는 혐오 감정이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만일 혐오가 단지 사람의 육체 적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만 한다 면, 혐오가 문제 될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사 람에게 대단히 유익한 감정이라 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 른 여러 원초적 감정들 혹은 기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혐오도 사 회적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혐오는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생명 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도 있으 며 따라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 그 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 상에 대해서 혐오감정을 체험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자신 만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이나 번 영을 해치는 대상에 대해서도 혐

오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나 사회 에 해로운 대상에 대한 혐오는 육 체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혐오의 사회적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혐오를 생물학적 혐오 - 본능적 혐오 혹은 원초적 혐오라고 할 수도 있다 - , 후자 를 사회적 혐오라고 한다.

사회적 혐오는 주로 사회의 생 존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반응이다. 사회적 혐오 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 에 대한 감정반응이므로 사회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혐오 현상은 심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 등으로 인해 자신과 사 회의 안전이 위협당한다고 느끼 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주민이 나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심해진다는 것이다. 사회 적 혐오 중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는 무조건 악이다. 어떤 사회가 박쥐나 돼지를 혐오한다 고 해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집 단이든 간에 특정 집단을 혐오하 는 것은 악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니포럼, 전북 금융특화도시 도약의 교두보

전북자치도가 금융특화도시 도약을 위한 지니포럼 연계 행사로 '전북 금융 산업발전 세미나'와 금융토크콘서트 '지 니톡톡'을 열었다. 이제 지니포럼은 단 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도약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 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금 융산업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그간 금융의 중심은 수 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지방은 성장 동력과 기회에서 소외돼 왔 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천 명한 것도 바로 이런 불균형 구조를 타 파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이 금융특화도 시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 다.

이번 지니포럼 세미나에서는 공공 기관 이전과 금융생태계 전략, 리츠 (REITs) 활용 방안, 금융중심지 지정 추 진 과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학계 와 산업계,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댄 논 의는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질적 실행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북혁신도시 와 만성지구 일대에 조성된 26만 평 규 모의 핀테크육성지구는 그 출발점이다. 이미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핀테 크 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 경험을 토 대로, 전북은 금융기업 집적과 관리 기 반을 강화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토크콘서트 '지니톡톡'은 도 민과 청년들에게 금융 지식을 나누는 장 으로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 강연과 질 의응답을 통해 장기 자산관리, 글로벌

경제 변동성 대응 전략 등 실물 경제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 공했으며, 금융기관 취업 상담 부스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기회를 열어주었 다.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은 단순히 제도 적 기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금융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청년층의 참여가 함 께할 때 비로소 금융생태계가 살아 숨쉬 게 된다.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현실화해야 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 한 시대적 과제다. 이어, 해외 자산운용 사 유치와 국제금융컨퍼런스 운영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 상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도민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금융이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 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니포럼이 연례 행사로만 머물러서 는 안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 책적 제안과 전략적 논의가 행정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전북은 금 융특화도시로서 명확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전북은 이미 핀테크 육성지 구를 비롯해 금융혁신의 토대를 다져왔 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장기적 로드맵 아래에서 흔들 림 없이 추진하는 집념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 금융중심 지 전북의 도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다. 지니포럼이 그 도약의 발판이자 교 두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지역사회, 학계, 산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문 화 열

군자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지정일 - 1990년 6월 3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32-7 (고부리)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편집국 팩스 283-8800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678-4271

송천지사- 010-5242-3694

남윗지국 010-2285-3987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임실지국 010-8642-6502 정읍자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완주지국 010-3672-0308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오늘의시

저무는 바다를 머리맡에 걸어 두고 / 이외수

살아 간다는 것은 저물어 간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사랑은

자주 흔들린다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 생. 1964년 춘천교대를 중퇴했

어떤 인연은 노래가 되고 어떤 인연은 상처가 된다 하루에 한 번씩 바다는 저물고

노래도 상처도

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다.

나지막히 그대 이름을 부른다 살아 간다는 것은

무채색으로 흐리게 지워진다

나는 시린 무릎 감싸 안으며

등이의 겨울수첩'등을 간행했다. 으로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겨울나기', 장편 '들개', '칼', '산 1994년 선화(仙畵) 개인전을 개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목',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 에세 최하는 등 화가 경력도 있다. 1975년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 이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 소설 '훈장'과 '꿈꾸는 식물', 시집 약'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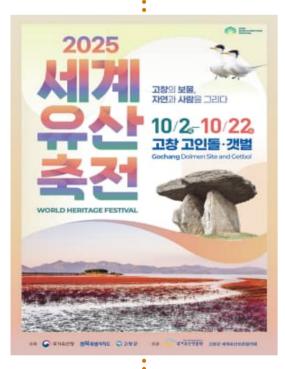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악하

내가 혼자임을 아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신문! 광고문의 282=9601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전북타임△신문

세계유산축전으로인류문명과자연의위대함알린다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25세계유산축전개최

'국내유일' 유네스코 보물 7개 보유 도시

전북 고장군을 처음 방문 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IC를 지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를 알리는 멋진 조형물과 마주한다. 하단에는 5개의 세계유산 엠블럼이 새겨져 있다. 조형물은 고창군의 중심인 군청 앞에도 세워져오가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이 인증샷을 찍는 포토존으로 사랑받고 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일곱개를 보유한 국내유일의 도시다. 2000년 죽림리 일대 고인돌 447기가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3년엔 판소리, 2014 년 농악이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 다.

2013년에는 행정구역 전지역(671.52km)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지역이다. 이어 고창갯벌이 2021년 세계자 연유산으로 등재됐고, 2023년엔 고창 병바위 등 지역명소 13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서 유네스코의 주요 자연환경 프로그램 3개 모두를 석권했다. 여기에 동학 농민혁명 무장포고문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유대전에 용제되어 있다.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고창군은 세계유 산 일곱개를 특화한 관광산업으로 사람과 돈 이 모이는 활력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대 인류문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결정체" 고인돌유적

"우리 동네에는 고인돌이 사방천지에 있었어", "봄이면 고인돌옆에 쑥이 나고, 가을이면 쑥나던 자리에 버섯도 나왔지", "잡은 고기를 구워 고인돌에 상을 차려 먹기도 했어"

국내 최대 고인돌 밀집지역인 고창군 아산 면 죽림리 일대 할머니들의 옛 기억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은 현재의 인 류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 한낱 돌무덤에 불과했다. 인류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고대사회에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석문화의 중심에고창이 있었다는 사실은 비단 대단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고창군은 오랜 연구를 통해 고인돌유적을 2000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했다. 규모의 방대함과 함께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거석문화 연구의 살아있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고인돌 축조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채석장은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모래 펼혼밥갯벌 한 곳에..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지질·생태자원 '고창갯벌'

고창군 심원면 앞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바닷물이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대바구니를 짊어진 촌로들은 회색빛 갯벌에 통발을 심어 칠게잡이에 나서고, 아낙들은 밭을 매듯 갯벌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바지락 등 조개를 캔다. 갈매기 떼는 갯벌에 숨은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부리를 움직인다.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 사 암반해안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 갯벌로 Δ해리면 모래갯벌 Δ심원면의 혼합 갯벌 Δ부안면의 펄 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 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희귀하 다. 특히 폭풍모래 퇴적체인 쉐니어(Chenier, 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가 형성된 지형·지질학적으 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새 기착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서식지로의 가치도 인정 받았다.

또 고창군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창 갯벌을 찾는 철새 '뿔제비갈매기'를 군의 상 징 새로 지정하고, 최근 열린 '제62회 전북도 민체육대회'의 마스코트로 활용하며 화제를 모았다.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세계유산축전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주 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고창군 세계유산 보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이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 일원에서 열린다.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의 가치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고인돌 세움학교'와 '고창갯벌 탐조여행'을 꼽을 수 있다. '고인돌 세움학교'는 학교 수업 형태의 현장 체험 프 로그램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 고 수업 완료시에는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 다. '고창갯벌 탐조여행'은 전기차 탐방과 함께 하는 해설 탐조 프로그램으로 멸종위기 조류 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려진 다.

이외에도 '숨쉬는 돌, 사계의 결 : 특별기획 전', 준비된 의상을 입고 직접 고인돌 축조과 정을 체험해보는 '고인돌 세움마당', 트랙터 를 타고 갯벌속으로 들어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갯벌속으로 GO! GO!', 국제학술대 회, 유적 투어, 환경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 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특별한 가치를 만끽 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